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고찰: 그 근원과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학부 2014230081 김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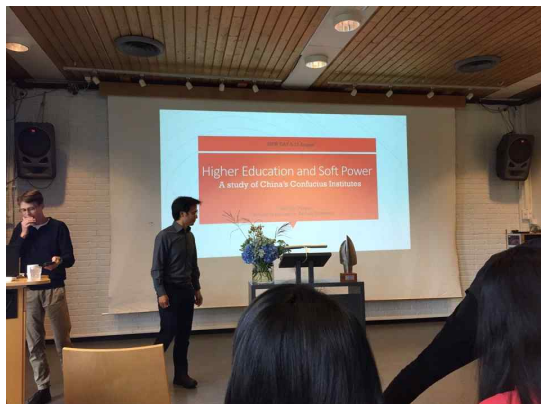
불어불문학과 2016131035 김정아

영어영문학과 2018130808 이지형

1. 서론

“한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NEWDAY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사람과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곳이기도 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곳이기도 했다. 한국 밖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학생들도 K-POP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의 K-POP에 대한 관심이 꼭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거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Education and Soft Power 강연 모습>

그러던 우리는 프로그램 일정 중에 'Education and Soft power' 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다. 중국이 공자 학원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자연스레 심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중국어와 한문 교육 등을 통해 중국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고, 뉴스 등에서 접하기 쉬운, 여러 나라와 대립하는 강대국 중국의 모습이 아닌 똑똑하고 배려심 있는 개인 중국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외국인들이 중국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강의는 프로그램 기간 내내 한국 바깥에서의 한국의 모습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던 우리 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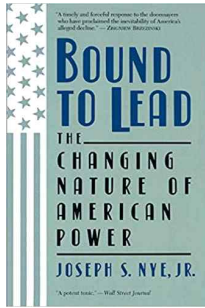
K-POP은 흔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두게 하는 첫 번째 '스파크'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수출'한 문화 중 가장 강력한 상품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K-POP이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힘의 전부일까?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다른 요소들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단순한 관심을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이끌 수 있을까? 즉,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NEWDAY 프로그램에서 만난 노르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더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후술되는 내용에서 우리 조는 먼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린 후, 노르웨이 학생들에 대한 개인/집단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지는 소프트 파워의 근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루어볼 것이다.

2. 소프트파워란 무엇인가?

국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드 파워라고 부른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소프트 파워'로, 한 나라의 문화, 외교정책, 사회적 가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러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달리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 대신 타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좋아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조지프 나이(Joseph Nye)이다. 그는 저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기존의 하드 파워에 기반한 국제정치에서의 권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 국제정치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무력과 경제력에 의한 강압이 아닌 방법으로도 자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공자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소프트 파워의 촉진제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원조, 자국 대중문화의 확산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당선 수락 연설에서 한 말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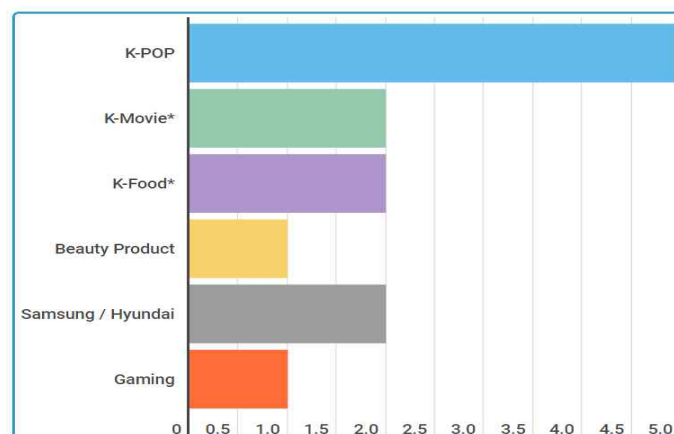
*"미국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지닌 무기의 위력이나 부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이상, 즉 민주주의, 자유, 기회, 굴하지 않는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¹⁾

즉, 자신들이 믿는 것을 다른 이들도 믿게 만들어 자신의 의견에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국제 사회에서 하드 파워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이유이며 각국이 문화 수출에 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달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한 나라가 가진 소프트 파워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될지 알 수 없으며, 무형의 개념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프트 파워의 구축 또한 하드 파워로 인해 얻어진 기존의 권력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절대적 하드 파워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가치를 수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어 미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3. 한국의 소프트 파워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주요 주제로 5명의 노르웨이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 Axel, Mathias, Vegard, Jenny, Simone)



1) "The true strength of our nation comes not from our the might of our arms or the scale of our wealth, but from the enduring power of our ideals: democracy, liberty, opportunity, and unyielding hope." (Obama, 2008, Acceptance speech)

3.a. K-POP



사진 왼쪽부터 Vegard, 김지우, Jenny

인터뷰 대상자: Jenny Ljones(오슬로 대학교, 재학), Vegard Jerpasen(NTNU, 재학)

Jenny: K-POP은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첫 번째 기회였어. 나는 분명 한국 문화가 K-POP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 K-POP은 한국 문화에 다가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

Vegard: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는데, 덕분에 K-POP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교 문화, 술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

K-POP은 슈퍼주니어부터 현재의 BTS까지 점진적으로 한류를 타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한국인들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BTS 빌보드 1위’와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차트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막연하게나마 K-POP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실로 K-POP이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해 물으면 김치나 강남스타일로 대답이 국한되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 중 꼭 1명씩은 K-POP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 K-POP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고도 할 수 있다. 음악을 좋아하고 듣고 가수를 응원하는 것에서 그칠 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3.b. K-Movie



사진 맨 오른쪽 Mathias



사진 맨 왼쪽 Axel

인터뷰 대상자: Axel Haraldsen (오슬로 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Mathias Ruud (Nansenskolen 졸업)

Axel : 좋은 한국 영화를 많이 알아. <옥자>, <마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부산행>, <아가씨>.... 박찬욱 감독을 정말 좋아해.

Mathias : <버닝>, <살인의 추억>이 기억나는데... 영화 말고도 <아는형님>, <무한도전>, <런닝맨>도 봤어. 근데 노르웨이에선 이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해. 최근엔 <미스터 션샤인>을 봤어.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본다면 <올드보이>가 항상 먼저 나온다. 한국영화가 최근 들어 칸 영화제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 출품되고, 심지어 수상하기까지 하니 그 명성이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영화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 대상자 두 명 다 <기생충>을 보고 싶은데 노르웨이에는 내년엔 개봉한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3.c. K-Food



사진 왼쪽 앞 Simone

인터뷰 대상자: Simone Stendal(오슬로 대학교, 재학), Axel Haraldsen(이상 동일), Vegard Jerpasen(이상 동일)

Simone : 한국하면 전통적인 것들... 김치나 한복이 바로 생각나.

Axel : 한국에서 ‘먹방’이란게 시작된 거 맞지? 매운 음식 엄청 잘 먹는 것 같아. 나도 매운 거 먹어보고 싶어. 노르웨이에는 매운 음식이 아예 없으니까.

Vegard : Korean BBQ가 바로 떠올라.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어.

한국 음식 하면 모두가 입을 모아 ‘김치’라고 대답하던 것과 달리 이젠 ‘먹방’과 ‘Korean BBQ’가 다른 선택지로 나오기 시작했다. 외국에 여러 한국식 숯불구이 고깃집이 생기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mukbang’이라는 동영상 채널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한국의 음식문화가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음식 먹는 행위 자체보다는 음식을 먹고 씹으며 나는 기분 좋은 소리를 ‘ASMR’처럼 들려주기 위해 시작된 것인데 이젠 맛있는 음식을 보고 대리만족감을 느끼거나,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하며 방송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점점 해외 유튜버들의 ‘mukbang’ 채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3.d. Electronic Products (Samsung, Hyundai)

인터뷰 대상자: Axel Haraldsen, Mathias Ruud

Axel : 당연히 Samsung, Hyundai를 빼뜨릴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이 폰을 보면 한국이 기술이 많이 발달한 국가라는 걸 느껴.

Mathias : (한국 제품 중에) 삼성폰, 반도체를 소비한 경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과 현대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에서도 대부분 삼성 또는 애플 폰을 쓰듯이 노르웨이에서도 Axel과 Mathias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3.e. Beauty Products

인터뷰 대상자: Mathias Ruud

Mathias : 브랜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써본 적 있는 것 같아.

한국의 여러 화장품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사실이 미용에 관심이 많은 주변 아시아 국가에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유럽에는 한국 뷰티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에는 이미 프랑스에 유명한 스킨케어, 메이크업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한국 제품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상품을 쓰더라도 한국 브랜드명 중 Skinfood, innisfree 등 영문 이름이 많기 때문에 ‘한국’브랜드임을 모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3.f. Gaming

인터뷰 대상자: Vegard Jespasen

Vegard: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한국 게이머들이 게임을 잘하는 걸 알아.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한국인 이미지가 떠올라.

(게임 종류: Starcraft, Overwatch, League of Legend)

한국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리에 PC방이 많은 만큼 Vegard가 말하는 'Gaming world'에서 한국 게이머들의 명성이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한 실력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Vegard는 말한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한국에서와 달리 해외에서는 오히려 머리가 좋고, 큰 노력을 통해 실력을 쌓는 성실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4. 개선 방향 및 해결책



고려대 학생들이 Q&A Session 동안 대답하는 모습

앞서 살펴본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소프트 파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무조건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소프트 파워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상쇄 요인이 개선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면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에는 무엇무

엇이 있는지 탐구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NEWDAY 프로그램 중에 진행한 외국인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의 잠재적 장애물 및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려고 한다.

4.a. 첫 번째 방해물 - 외적 기준

인터뷰 대상자: Jenny. H. Ljønes, Simone Synnøve Stendal

Jenny: 나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미적 기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그토록 엄격하게 획일화된 미적 기준이 강요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Simone: 나도 동의해.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쌍꺼풀 수술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 그 이외의 여러 젠더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줬어. 그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많은 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써 획일화된 미적 기준을 꼽았다. “만약 한국 학생들의 말대로 쌍꺼풀, 하얀 피부 등 구체적으로 정립된 소위 ‘미인상’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이 은연중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의견에 노르웨이의 학생들은 많은 공감을 표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우리 조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최대치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한국의 미적 기준에 대해 성찰해본 후 변화를 가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어갈 수 있었다.

4.a.i. 해결책 1 -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가이드라인 확립

결국 획일화된 외적 판단 기준을 양산하고 그것에 의한 차별을 가속화시키는 근원에는 미디어가 존재한다. 미디어에서는 특정한 외적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고, 미디어에서의 이러한 표현을 보며 시청자들은 미디어 안에 내재된 외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이상적인 외모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공급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이상적인’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게 되며, 그 와중에도 미디어에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획일화된 외모 조건을 더욱 강하게 콘텐츠에 반영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콘텐츠가 외모지상주의라는 당대의 사회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교육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강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미디어가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듯하다.

4.a.ii.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 홍보

국내에서 외모 지상주의 관련 문제가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노력이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강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첫 번째 해결책을 포함한 여타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뉴미디어, 보도자료 및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홍보 프로그램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

4.b. 두 번째 방해물 - 주변국과의 외교적 대립



사진 왼쪽부터 Axel, Vegard, Cathy, Aurora, Jani ke, Simone.

인터뷰 대상자: Axel Haraldsen, Mathias Ruud

Axel: 한국에는 여러 좋은 점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북한과 진행되고 있는 냉전 상태는 한국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Matthias: 한국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중 하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을 꼽고 싶어.

인터뷰 대상자 Axel과 Mathias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이나 북한과의 대립이 한국에 대한 본인들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상기 인터뷰 대상자들이 외교적 대립의 와중에 한국이 취한 외교적 태도가 아닌

대립 그 자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이 외교적 마찰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와 무관하게 마찰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다툼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봉합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대응 자세를 취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4.a.3. 세 번째 방해물 - 대중문화로서 케이팝의 한계

인터뷰 대상자: Mathias Starheim Ruud

Mathias: 케이팝을 주로 젊은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다는 통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층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케이팝이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인터뷰 대상자들이 밝힌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마지막 한계점은 바로 케이팝을 즐길 수 있는 연령 스펙트럼이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견인하는 가장 주된 플랫폼은 바로 케이팝이다. 하지만 케이팝은 대중 문화의 범주에 속한 문화적 요소이고,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연령층은 주로 10대~30대의 청년층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층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케이팝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고로 우리 조는 한국이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을 향해 포괄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4.a.3.i. 해결책 -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홍보 다각화

본 문제에 대해 우리 조가 고안한 해결책은 바로 케이팝 이외의 다른 한국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케이팝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어필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존재한다. 2006년 9월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첫 해외 국악공연장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만약 국악, 한복, 전통 식료품 등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케이팝을 주되게 즐기는 연령 스펙트럼 밖에 있는 외국인들일지라도 본인의 선호에 맞게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택권이 한층 더 다양해질 것이다.

5. 결론

보고서를 전개하며 우리 조는 소프트 파워의 정의, 그 정의에 입각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발현함에 있어 개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 조는 한국이 발현하는 소프트 파워의 기저에는 K-POP, K-Movie, K-Food, 한국 게임 등의 문화 콘텐츠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한국의 미용/전자제품 역시 소프트 파워 구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적 요소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견인하는 데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반면, 소프트 파워를 상쇄시키는 요인은 사회와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장기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내적/대외적 태도 안에 내재된 정당성을 견고히 하고, 그 성과를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어갈 수 있었다.

6.25 전쟁이 갓 종료된 1953년에서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도약하는 기적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도약하는 것을 목전에 둔 지금, 한국은 지금 구가하고 있는 물리적 영향력에 비례하는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생각해 볼 계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본 탐사 연구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